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 산업계에 활용되는 연구를 위한 연구소로 거듭날 것 향후 세계 축산연구의 허브로 정착

국내 농림업 중 축산업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 축산업'을 비전으로 삼고, 소비자 지향적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과 지속 발전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각 축종별, 분야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축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축산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축산관련 R&D 기관인 축산연구소는 현장 중심의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오늘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축산연구의 허브로 거듭나게 될 축산연구소의 올해 연구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올해 초 새로 부임한 이상진 소장에 게 들어보았다.

Q 먼저 축산연구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년 임기동안 연구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의향이신지요?



올해 1월 새로 부임한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

A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난 5년 사이 45.6%의 성장세를 보였고, 총 생산액도 11조8천억 원에 달하면서 농업 생산액의 33.5%로 외형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축산업의 보호책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인 경쟁력을 갖추 나가야 할 시급한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으로서 상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타개책으로 국가 연구소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면서 미래지향적 조직 문화를 정착 시킬 생각입니다. 아픈 현안은 치료하고, 닥쳐 올 도전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조직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지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의와 열정이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서, 조직 자체를 위해 조직이 존재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필요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실있는 성과관리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연구를 위한 연구를 없애는 것이 되겠지요. 이를 위해 연구과제별 성과목표와 단계적 이행안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풍토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첨단 연구는 첨단연구대로 산업계의 쓰임새를 따져 보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성 해결연구는 내부 기획과제화하여 기관장이 직접 성과를 관리하는 방법도 시도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와 협력하고 공적임무를 다하는 기관을 지향하겠습니다. 축산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토론기회를 확대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호협력안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문제에도 일익을 하겠습니다.

Q 올해 축산연구소 연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금년 우리 연구소의 전략목표로서 설명이 될 겁니다. ‘축산물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창출’, ‘지속가능 축산 기술개발’, ‘가축 유전자원의 국가 관리 및 개량’,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축산생명공학연구’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연구소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가 ‘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성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아울러 기술독립적이면서 기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전략목표에는 그러한 원칙이 깔려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올해 양계부문 연구에서 주력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양계산업은 일정공간에서 최대의 물량을 최단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축종이라서 그런지 다른 축종에 비해 다이나믹한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간 기술경쟁이 치열하고 신기술의 수명도 짧지요. 다시 말해서 기술개발의 순발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이 느린 연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히 양계분야는 조직화되고 정예화된 계열업체들이 최일선에 배치되어 국가의 닭고기 수요의 대부분을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우선 듣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고 있는 양계현장의 시급한 기술 수요는 항생제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의 조기정립과, 축산연구소에서 품종복원을 완료



한 재래닭을 하루 빨리 산업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앞서 이 두 가지 과제는 가금분야의 주요 연구과제로서 주력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 닭고기를 판매하는 곳의 진열 조건 설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닭고기 생산, 출하, 가공 단계별 이상육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열업체에서 요구했던 닭고기 창상 발생과 관련 환경요인, 사료영양요인, 병원성 요인 등을 종합 분석해서 해결책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안전 가금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성 물질 개발, 기능성 양계산물 생산 연구 등의 가금관련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축산연구소는 해마다 많은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이를 영농현장이나 산업체에서 도입해 활용하는 부분은 연구성과에 다소 못 미치는 듯 싶습니다. 이에 연구 개발한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방침을 세우셨는지요?

A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제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홍보활동과 고객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확인해 보니 현장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더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반성도 합니다. 해결책으로 세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개 신기술의 농가 실증사업과 현장모니터링 사업을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지속 추진합니다.

두 번째는 '축산기술지원 119'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등 8개



이상진 소장이 축산연구소내 설치된 축산홍보관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의 전문가로 팀편성과 전국 네트워크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 팀이 현장애로기술사항의 실시간 해결을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산고객관리 및 홍보강화입니다. 축산현장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고객관리 매체는 기관에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며, 기관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목표로 하는 세일즈 차원의 홍보 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축산연구소를 세계 축산연구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이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는 '향후 10년내 세계 5위권 축산선진기술 구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가 유일의 축산관련 R&D 기관으로서 관련 분야기술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은 대한민국 축산의 기술력인 셈입니다.

제 나름대로 세계적인 축산연구소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우선 축산 관련 모든 분야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원 154명이 있습니다. 81%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장기간 축적된 Know-ho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의 대학 및 연구소와 교류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올해도 100명 정도의 직원을 해외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존 MOU 체결 대학 및 연구소를 지속 관리하면서 새로운 동반자를 발굴하여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케냐에 본부를 둔 국제축산연구소에 연구관을 상주시켜 세계 동향을 파악하는 경로로 활용하겠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게재 강화책으로서 국제학술행사 등록비와 금액이 만만치 않은 논문게재료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정예화되고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얻어 나간다면 우리 연구소의 세계화·국제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취재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이상진 소장 프로필

- 1973~1977 경상대 축산학 전공
- 1984~1986 건국대 대학원 가축사양학 농학석사
- 1988~1991 경상대 대학원 가축사양학 농학박사
- 1977. 2. 제주시험장, 축산시험장 축산연구사
- 1992. 3.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관
- 1998. 8. 농진청 연구관리국 축산연구관
- 2000. 1.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장, 기금과장
- 2004. 4.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장
- 2007. 1. 축산연구소장